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강 지 희¹⁾

최 명 선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5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FRS-A를 사용하였고, 우울척도(CDI), 불안 척도, 내현적자기애 척도(CNS)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백분율, Cronbach α 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 중 불공평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 중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목표불안정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경험 중 불공평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화 경험과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우울의 자기비하, 무력감, 대인장애, 우울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부모화 경험 중 불공평과 우울에 부분 매개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 목표불안정, 소심/자신감부족, 착취/자기중심성에 의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화 경험 중 정서적 부모화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하위변인인 소심/자신감부족이 불안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화경험,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성향

* 본 논문은 2008년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 lkjh0624@hanmail.net)

2)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특별한 구별 없이 정과 더불어 측은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를 배려하고 가족 내 유대와 조화, 책임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기쁨과 고통은 자녀의 기쁨과 고통이 되어 지고, 부모의 기쁨과 슬픔은 나의 감정으로 경험되면서 부모에게 슬픔을 주는 행위를 피하거나 억제하게 되고, 기쁨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최재석, 1982).

특히,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한 관계와 화목함이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부모에 대한 효가 중요시되어져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절제와 타인배려를 통해 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부모 자녀관계 안에서 이른바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하는 어른스러운 아동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최인재, 2005). 이러한 한국사회의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부모 자녀간의 역할전이 즉, 부모화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는 자녀의 역할 특성에 따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부모화로 구분되어지고, 불공평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적응적, 파괴적부모화로 구분되어 진다(Jurkovic & Thirkied, 1999). 물리적 부모화는 부모의 역할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녀들이 물리적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부모화는 가족의 기분을 맞춰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도맡게 되므로 가족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하고, 회복시켜주는 정서적 활동을 말한다. 부모와 가족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일시적으로 부모나 가족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모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책임감이 부과되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공평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모화 역할을 내면화 하지 않아 적응적인 부모화가 된다. 반면에 스스로를 보살피는 행동과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행동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고, 억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 파괴적 부모화가 된다. 이처럼 부모화 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돌봄 및 주고받음에 있어 얼마만큼의 불공평함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적응적 부모화, 파괴적 부모화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조은영, 2004; 김경미, 2006; Jurkovic, 1997).

부모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행동은 상호호혜적이며,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키고, 억제시키면서까지 부모를 배려하게 되어 자녀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Davies, 2002). 이처럼 부모화된 자녀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능하고 적응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부모화 행동에 따른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겉보기에 바람직한 자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Jurkovic, 2001).

부모화 된 자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책임감이 높은 만큼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지속된 스트레스와 반복된 긴장 상황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화 된 자녀들은 우울과, 불안,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의 청소년기에 정서, 행동의 특징으로 자기애적 성격,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수치심, 과도한 죄의식, 신체화증상, 피로, 열중, 만성적인 걱정,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Byng-Hall, 2002; Jurkovic, 1997; Wells & Jones, 2000). 또한, 부모의 과도한 욕구로 인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1991).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거짓자기를 형성하기도 하게 된다. 부모를 배려하는 아동은 자신의 욕구가 아닌 부모의 욕구를 따르면서 거대한 거짓자기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통 자신이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또한, 부모화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행동을 통제나 조종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목을

받으려는 행동의 정도가 높다(Wells & Jones, 1999; Cleary, 1992). 또한, 부모화 경험은 책임감,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능력과 관계속의 조화로움의 측면에서 때로는 유능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으나 부모화 경험이 장기화되거나 높을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내면화되어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문정덕, 2006). 이처럼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모화 경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고, 학업성적에 과민해지면서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의 확대로 인하여 또래, 이성, 교사,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과 수치감, 학업부진, 교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친한 친구와의 다툼, 학교생활 적응과정, 부모의 이혼 등의 심리적인 갈등 등으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 좌절요인들이 반복되거나 충격으로 지속되게 되면 깊은 열등감과 무가치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현실지각과 우울,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권석만, 2001; 김광웅, 2005; Zimbardo & Weber, 1997).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발달과제와 심리적인 변화와 다양한 대인관계의 확대로 인하여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울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그들의 발달과업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울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의 변화와 심리상태의 변화생기면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고, 활동량이 많이 지고 더불어 긴장감도 많아진다. 따라서 피로감과 게으름, 불안해하기도 쉽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개인 내적인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로 인하여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불안감이 증가하기도 한다(도금혜, 2008; 허혜경, 김혜수, 2002). 청소년의 불안은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불안은 개인적인 변인인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학교 환경변인인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금혜, 2008). 또한,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모나 가족의 지지가 불안의 수준을 낮춘다는 보고도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김민동, 2003, 정민현, 2002, 강규영, 2004, 최영숙, 김정민, 2008). 부모와의 애착이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정환경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역기능적인 역할 수행인 부모화 경험으로 가정환경 변인에 영향으로 불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추스르기 어려울 때, 억압과 같은 심리적인 반응들을 통해 자기를 추스르려고 시도를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여 경직되게 대처하려고 한다. 이처럼 불안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으로 사회불안은 수줍음, 수치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안, 회피적 성격, 사회적 성격, 대인 공포증 등으로 나타난다(이정운, 1997).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자기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단서를 포착하는데 주의를 기울리며,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치감이 부족하여 사회 회피, 불안감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권석만, 2000).

청소년기에는 발달과업의 특성상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가중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행동을 모델링하게 되고,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잃게 되면서 정신건강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 Sliverstein, 1994). 그 중 부모화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자기비난 및 낮은 자존감, 신체화증상, 피로, 만성적인 걱정, 약물남용 등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Byng-Hall, 2002; Jurkovic, 199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을 불리하게 지각하거나 자아상이나 타인상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달과제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로 대표적인 우울과 불안 변인들을 선정하여 부모화 경험에 따라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모화 경험이 자기에 성향과 관계가 있다는 Wells & Jones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에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데 두 집단은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을 공통 특성으로 보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외현적 자기애가 웅대성을 밖으로 표현하여 오만하고 과시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 웅대감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부족하여 모호한 우울감에 시달린다(Kohut, 1977).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우울, 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우울,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박세란, 2004; 정남운, 2001; Kohut, 1977;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자기평가에 긍정적이어서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으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필요한 감정에 둔감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 하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불안 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비난을

회피하는 방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느낄 때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게 보여 사람들로 부터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박세란, 2005; 이정운, 최정훈, 1996).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내현적 자기애가 가지는 특징인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 취약성과 같은 맥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과민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정남운(2001),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순종적이며 자신감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내면세계에는 상당한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고 늘 그것에 대해 촉각을 세우면서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취약성은 자기애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과 고통을 크게 하고 사회적으로 회피하게 된다(박세란, 2005).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성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우울과 사회적 회피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의 특성이 부모화 경험을 겪는 청소년들의 특성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며, 타인 배려적이며, 관계에서 주목받거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특성과 부모화 경험의 특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추론된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화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차별적 접근과 부모화 경험에 대한 예측과 사전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료전략과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우울을 매개하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불안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 303명, 여학생 200명으로 각각 전체 청소년의 60.4%, 39.6%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15세 이하가 37명(7.4%), 16세 163명(32.5%), 17세 203명(40.4%), 18세~19세는 109명(19.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부모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를 신주연(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부모화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부모화, 불공평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68 .60 .66이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청소년이 보이는 우울증세를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와 Beck(1977)가 개발하고 이미리(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DI는 7세 부터 17세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있어 BDI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적합한 척도로 여겨져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CDI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이 Likert식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7 .78 .80 .76 .74이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불안 척도

청소년들이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의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on anxiety를 이정운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감 척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불편감 및 회피에 관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5이었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Arke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척도를 도출하여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각 요인별로는 순서대로 .79, .78, .77, .70, .74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화 경험과 우울, 불안, 자기애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부모화 경험과

우울, 불안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매개효과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독립, 매개, 종속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인인 부모화 경험 정도와 매개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그 하위 영역, 종속 변인인 우울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VIF 계수가 1.21-2.0으로 10보다 적게 나타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화 경험,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서 살펴보면 부모화 경험은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화 경험의 하위영역중 물리적부모화는 우울의 대인장애($r=.20, p<.01$), 불안($r=.13, p<.0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r=.16, p<$

표 1. 부모화 경험, 우울, 불안,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부모화 경험	1 물리적부모화	1													
	2 정서적부모화	.49**	1												
	3 불공평	.38**	.52**	1											
우울	4 우울정서	.16**	.24**	.31**	1										
	5 대인장애	.20**	.24**	.34**	.48**	1									
	6 무능감	.02	.10*	.16**	.23**	.23**	1								
	7 무력감	.19**	.22**	.39**	.52**	.49**	.26**	1							
	8 자기비하	.13**	.16**	.34**	.49**	.42**	.37**	.59**	1						
불안	9 불안	.13**	.22**	.19**	.03	.05	.05	.10*	.05	1					
내현적 자기애 성향	10 과민취약성	.16**	.17**	.32**	.22**	.17**	.20**	.33**	.35**	.35**	1				
	11 소심/자신감부족	.12**	.18**	.22**	.16**	.14**	.18**	.29**	.27**	.30**	.55**	1			
	12 목표불안정	.04	.12**	.15**	.19**	.11*	.18**	.25**	.28**	.13**	.42**	.42**	1		
	13 인정욕구/ 거짓자기환상	.04	.12**	.11*	-.10*	-.02	-.15**	.01	-.09	.28**	.33**	.16**	.11**	1	
	14 착취자기중심성	.06	.19**	.12**	-.03	.07	-.06	.09*	-.03	.30**	.36**	.21**	.16**	.54**	1

* $P < .05$, ** $P < .01$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서적부모화는 우울의 우울정서, 대인장애($r = .24$, $p < .01$), 무력감($r = .19$, $p < .01$) 불안($r = .22$, $p < .01$), 자기애성향의 착취자기중심성($r = .19$, $p < .01$)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불공평은 우울의 하위영역 중 무력감($r = .39$, $p < .01$), 불안($r = .19$, $p < .0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하위영역 중 과민취약성($r = .32$, $p < .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과 불안의 상관관계는 과민취약성은 자기비하($r = .35$, $p < .01$), 불안($r = .35$, $p < .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심/자신감부족은 무력감($r = .29$, $p < .01$), 불안($r = .30$, $p < .01$)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목표불안정은 자기비하($r = .29$, $p < .01$), 불안($r = .13$, $p < .01$)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정욕구/거짓 자기 환상은 무능감($r = -.16$, $p < .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불안과는($r = .28$, $p < .01$)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착취자기중심성은 우울의 무력감($r = .09$, $p < .05$), 불안($r = .30$, $p < .01$)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화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세 개의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 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 변인인 내현적 자기

에 성향의 영향을 살펴본 후,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종속 변인인 우울과 불안에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독립 변인인 부모화 경험과 매개 변인인 내현적 자기에성향을 동시에 투입하고, 종속 변인인 우울과 불안에 독립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 변인인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매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회귀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다음 두 번째 회귀단계에서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 변인이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의 하위영역인 물질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는 우울에 상관을 보였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의 매개효과

부모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이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화 경험의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0, P<.001$), 불공평이 종속변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25, P<.0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표 2. 불공평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과민취약성	.30***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우울정서	.25***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우울정서 과민취약성→ 우울정서	.20*** .16**

($\beta=.20, P<.001$), 불공평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20, P<.001$)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우울정서를 부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 회귀계수가($\beta=.30,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불공평이 종속변인이 무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표 3. 불공평의 무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과민취약성	.30***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능감	.17**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무능감 과민취약성→ 무능감	.11* .19**

유의함($\beta=.17, P<.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이 무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19, P<.01$), 불공평이 무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1, P<.05$)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무능감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불공평이 종속변인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33, P<.0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19, P<.001$), 불공평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25, P<.00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무력감을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불공평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과민취약성	.30***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무력감	.33***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무력감 과민취약성→ 무력감	.25*** .19***

표 5.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민취약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과민취약성	.30***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자기비하	.3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자기비하 과민취약성→ 자기비하	.26*** .27***

표 5와 같이 독립변인이 불공평이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에 미치는 영향($\beta=.3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beta=.34, P<.001$)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과민취약성이 자기비하에($\beta=.27, P<.001$)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어들어($\beta=.26, P<.001$) 불공평의 자기비하는 과민취약성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모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표불안정의 매개효과

표 6과 같이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목표불안정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2, P<.001$), 불공평이 종속변인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25, P<.0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목표불안정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10, P<.05$), 불공평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표 6. 불공평이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표불안정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목표불안정	.12***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우울정서	.25***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우울정서 목표불안정→ 우울정서	.20*** .10*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20, P < .00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목표불안정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우울정서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목표불안정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2, P < .05$), 불공평이 종속변인인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beta = .34, P < .001$)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목표불안정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력

표 7.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표불안정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목표불안정	.12*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자기비하	.3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자기비하 목표불안정→ 자기비하	.26*** .14**

이 유의하였고($\beta = .14, P < .01$),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에 비해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beta = .26, P < .001$)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목표불안정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자기비하를 부분 매개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심/자신감부족의 매개효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부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6, P < .001$), 불공평이 종속변인인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beta = .33, P < .001$)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소심/자신감부족 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14, P < .01$), 불공평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에 비해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beta = .25, P < .001$)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 부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무력감을 부분매개하였다.

표 8. 불공평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심/자신감부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소심/자신감부족	.16**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무력감	.33***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무력감 소심/자신감부족→ 무력감	.25*** .14**

부모화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착취/자기중심성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불공평변인이 매개변인인 착취/자기중심성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18, P<.001$), 불공평이 종속변인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beta=.34, P<.001$)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착취/자기중심성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11, P<.01$)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에 비해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어($\beta=.26, P<.001$)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착취/자기중심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자기비하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9와 같다.

표 9. 불공평이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착취/자기중심성에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불공평→ 착취자기중심성 .18***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불공평→ 자기비하 .3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불공평→자기비하 .26*** 착취/자기중심성→ 자기비하 -.11**

2.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

표 10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정서적부모화변인이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부족 회귀계수가($\beta=.11, P<.05$)인 것

표 10. 정서적 부모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심/자신감부족의 매개효과

단 계	β
1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정서적부모화→ 소심/자신감부족 .11*
2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부모화→ 불안 .17**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정서적부모화→불안 .14** 소심/자신감부족→ 불안 .15**

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정서적부모화가 종속변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beta=.17, P<.01$)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소심/자신감부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15, P<.01$), 정서적 부모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14, P<.0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부족은 부모화의 정서적부모화와 불안에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화의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 중 불공평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과민취약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우울정서, 무능감, 무력감, 자기비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목표불안정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우울정서와 자기비하에 부분 매개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심감 부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무력감, 자기비하를 부분 매개 하였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착취/자기중심성은 부모화의 불공평과 우울의 자기비하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화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부가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모화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치관과 욕구를 내면화 시키면서 바람직한 아이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항상 성공을 꿈꾸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되된다.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심한 게으름, 자책, 의욕상실, 허무감을 보이면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소진감을 느끼며 장기간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평가에 예민한 모습과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울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강선희(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모화 된 자녀들이 배려 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억압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자기애적

성격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Jones & Wells(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부모화 된 자녀들은 배려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하게 되며, 관계가 지속될수록 자신의 욕구가 억압되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배려함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불공평함을 느끼게 된다(Bowlby, 1997). 불공평함을 느끼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부모화 경험으로 인하여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부모화 경험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불공평함을 가족환경의 지지나 사회환경의 지지를 통해서 불공평함에 대해서 해소시켜주고, 긍정적인 측면인 타인배려적인 모습 등을 통해 관계 속에서 적절한 자기표현과 자기에성향에 긍정적인 측면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 긍정성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바꿔주면 자기비하와 무능함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해도 자신만이 안 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고를 바꾸면서 무력감과 항상 불행하고 우울하다는 우울정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통해 실패해도 되고, 착한모습만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는 경험을 통해 감소시켜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서적부모화는 우울 중 우울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매개효과로 검증 하였을 때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부모화 경험이 개인의 심리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Chase, 1999;

Boszarmeni & Spark(1973; Kaupel, 1976; Stierlim, 1974; Jurkovuc, 1999). 또한, 정서적 부모화가 갈등적 독립정도,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김경미(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관계에서는 효를 중시하는 부모자식관계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와 가족이 우선시되는 집단문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부모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물리적 부모화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장기의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실험해 봄으로써 자기유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능력과 관련된 대인관계에 따른 기술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용태, 2001; 신주연, 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부족은 부모화의 정서적부모화와 불안에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소심/자신감부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이 되어 부모의 불안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의 불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도 한다는 Bowen(197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불안에 민감한 반응

을 하며, 부모간의 갈등에 개입하고, 부모에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Chase, 1999). 가족 간이나 부모-자녀간의 불안한 관계를 참지 못하고 문제에 개입하여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정서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을 부족하게 나타내는 소심/자신감부족은 애착대상이 좋은 점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칭찬과 박대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면서 긴장을 경험하고 불안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 위해서 타인이 칭찬해주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데(권석만, 한수정, 2000), 이때, 부모화 경험을 통해 부모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정서적 부모화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부모화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화경험이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과 불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 내의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하여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화경험이 진행 중이어서 전반적인 부모화된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자기에적 성향이 크게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우울과 불안에 큰 영향을 보였으나 두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부모화 경험은 한국 고유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부모화 경험 설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과 발달연령별로 반영된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부모화 경험 하위변인인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둘째,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따라 부모화 경험이 자기에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하위변인을 구분하여 파악하지는 않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고 청소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 것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상담 및 부모화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상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내현

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모화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공평으로 인한 억압, 자기표현부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현적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시기에 긍정적인 자기와 정서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심리적 문제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심리적 접근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9
- 강지희,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43-53.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에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22.
- 김광웅 (2005).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간발달연구, 15(5), 131-147
- 문정덕 (2006).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

- 능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 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이미리 (1994). Cultural difference in the daily manifestations of adolescent depression: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High school senior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for the degree of Ph. D.
- 이정윤, 최정훈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험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 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 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허혜경, 김혜수 (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 (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CA: Sage.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Raven Press, New York.
- Jacobvitz, K.,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t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 1496-1504.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1997).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 L'Abate (Ed.), *Handbook of Family Psychopathology*. 237-255. New York: Guilford.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USA.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Wast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lls. M., & Jones. R. A.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2), 145-152.
- Wells. M., & Jones. R. A.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331-339
- Wells. M., & Jones. R. A. (1999). Object Relations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narcissistic and masochistic parentification styles. In N. D. Chase (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117-131. CA: Sage.
-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Zimbardo, P. G., & Weber, A. L., (1997). *Psychology (2nded.)*. New York: Longman

1 차원고접수 : 2008. 10. 02.

수정원고접수 : 2009. 03. 07.

최종게재결정 : 2009. 03. 09.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s: Covert Narcissism as a Mediating Variable

Kang, Ji Hee

Choi, Myung Seon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arentification on depression and anxie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if any) of covert narcissism on parentification and depression in terms of relationship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03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level of parentification was measured by means of the FRS-A Child depression Inventory (CDI), the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on Anxiety and Covert Narcissism Scale. In addition,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 α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effects of unfairness, a sub-variable of parentification, of hypersensitivity, timidity, and goal-instability, sub-variables of covert narcissis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High levels of unfairness leads to covert narcissism. Secondly, parentification and narcissism had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s upon self-abasement, sense of helplessness,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ve emotion, sub-variables of depression. Thirdly, covert narcissism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unfairness and depression. Especially in terms of hypersensitivity, goal-instability, timidity, self-centeredness, all had mediating effects. Fourthly, timidity, a sub-variable of parentification,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aregiving of parentification and anxiety.

Key words : Parentification, Depression, Anxiety, Covert Narcissism